

“교촌치킨, 버거로 즐겨요”… 1만원 안팎 ‘식사 시장’ 공략

델리 브랜드 ‘소식’ 론칭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주)가 판교 사옥 1층에 파일럿 브랜드 ‘소식(SAUCIT)’을 선보이며 새로운 식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촌이 34년간 축적해 온 소스 기술력을 전면에 내세워 ‘소스 중심 치킨 델리’라는 신규 포맷을 실험하고, 검증된 모델을 향후 브랜드 포트폴리오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브랜드명 ‘소식’은 ‘소스(SAUCE)’와 ‘It’s Kyochon Difference’를 결합해 “교촌은 소스부터 다르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매장 인테리어는 간장·허니·레드 등 교촌 시그니처 소스 컬러를 반영해 밝고 캐주얼한 분위기를 강조했으며, 곡선형 디자인과 오렌지 톤으로 소스의 점성과 풍미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메뉴는 버거·샌드위치, 보울, 프라이즈 등 1만 원 안팎 가격대의 ‘한 끼 전문형’ 구성이다. 치킨 패티와 한국식 소스를 조합해 점심·이른 저녁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7종 ‘딥앤딥’ 소스(쌈장 디핑·고추장 크림·허니마요 등)를 통해 메뉴별 최대 56가지



교촌에프앤비 사옥 소식 매장 전경

버거·샌드위치·보울·프라이즈 등 점심·이른저녁 중심 이용하게 설계
주문·조리·픽업까지 자동화 기반

7종 딥인딥 소스로 56개 맛 조합
3만원 구매시 소스추가 동전 제공

맛 조합을 구현했다. 음료는 스페셜티 등급 원두를 사용하고, 시그니처 메뉴 ‘너티허나라페’ 등 복합 재료 기반의 블렌딩으로 맛의 균형을 강조했다.

운영은 주문부터 조리·픽업까지 자동화 기반으로 구성됐다. QR 주문 이후 튀김·성형·기름떨이 공정이 자동

설비로 진행되고, 서빙로봇과 무인 픽업 시스템을 통해 고객 동선을 최소화했다.

특히 매장 경험 요소로 마련된 ‘소스 자판기’는 소식의 핵심 차별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제공되는 전용 코인을 투입하면 7가지 딥앤딥 소스 중 원하는 한 가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순한 증정이 아니라 ‘코인을 넣어 소스를 뽑는 경험’ 자체가 브랜드 기억도를 높이는 장치로 기능한다는 평가다. 교촌은 이를 고객 참여형 마케팅 자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코인 디자인과 소스 선택 UI도 별도로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뉴 조



소식 매장에서 낮 시간대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선보인 메뉴들.

합의 재미를 강조하는 소식의 콘셉트와 맞물려 고객이 자신만의 소스 레시피를 찾고 공유하는 ‘플레이 경험’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구조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소식은 교촌의 소스 아이덴티티를 한 끼 식사 형태로 구체화한 첫 테스트베드”라며 “점심 시장에서 치킨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 만큼, 매장에서 축적되는 고객 데이터와 반응을 기반으로 운영 모델을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을 통해 검증된 델리 포맷과 K-소스 경험을 그룹 내 다양한 브랜드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세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GS25

맥주 ‘데이지에일’ 등 차별화 주류 할인행사

편의점 GS25가 연말 주류 소비 증가에 맞춰 차별화 상품을 대거 출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는 오는 3일부터 맥주 2종, 와인 1종, 위스키 1종 등 총 4종의 차별화 주류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화제의 맥주 ‘데이지에일’이 11일 오프라인 매장에서 정식 출시된다. 이 제품은 일본 양조장 히타치노네스트와 지드래곤의 브랜드 피스마이너스원이 협업해 제작한 것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또한 3일에는 국내 유통사 최초로 ‘달차맥주’를 출시한다.

와인으로는 댄서 노제가 디자인에 참여한 한정판 ‘그로브빌소비농블랑뉴즈’를, 위스키로는 일본에서 하이볼용으로 인기를 끄는 ‘티처스’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12월 한 달간 2000여 종의 주류를 대상으로 할인 프로모션도 전개한다. 아사히 생맥주, 하이네켄 등 인기 맥주 17종과 차별화 하이볼 6종을 혜택가에 판매한다.

/손종욱 기자



이마트가 고래잇페스타 후반기 행사에 나서며 연말 물가 잡기에 돌입한다.

/이마트

이마트, 장바구니 물가 잡기 ‘고래잇 페스타’ 후반전 돌입

내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진행

이마트가 창립 32주년 기념 대규모 할인행사 ‘고래잇 페스타’의 후반전에 돌입하며 연말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나선다.

이마트는 오는 2일부터 10일까지 ‘고래잇 페스타’ 2차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축산, 수산, 과일 등 신선식품부터 가공식품, 생활용품, 대형가전까지 전방위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연말 수요가 높은 축산물 가격을 대폭 낮춘다. 2일부터 4일까지 수입 삼겹살과 목살을 100g당 890원에 판매하며, 미국산 살치살은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한다. 7일까지는 브랜드 한우 전 품목을 40% 할인하고, 양념 갈비류도 최대 50% 저렴하게 선보인다.

수산물과 과일도 파격가에 준비했

다.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황제전복, 세네갈 갈치, 국물멸치를 반값에 판매하며, 오징어, 딸기, 골드키위 등도 이마트 단독 특가로 내놓는다.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은 ‘골라담기’ 행사를 통해 혜택을 강화했다. 식용유, 장류, 참치, 치즈, 버터 등 인기 식재료와 미용티슈, 세제, 치약 등 필수 생활용품을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한다.

대형가전 구매 고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행사카드로 삼성·LG전자 대형가전을 전액 결제 시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8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하며, 제휴카드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이마트 정양오 전략마케팅본부장은 “고객 제일 원칙하에 전략적 가격 투자를 지속해 연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신세계 파주 아울렛 ‘겨울왕국’ 변신

이색 크리스마스 콘텐츠 선보여
센트럴스퀘어 조명 3000개 장식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이 연말 시즌을 맞아 야외형 쇼핑센터의 강점을 살린 이색 크리스마스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주목할 곳은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이다. 내년 2월 1일까지 매지컬 프로즌 빌리지를 테마로 센트럴스퀘어 일대를 3000개의 조명으로 장식한다. 특히 추운 날씨를 활용한 아동 전용 아이스링크를 금요일부터 일요일, 공휴일에 무료로 운영한다.

푸드 팝업존에서는 카누 탭바의 커피와 옥회분식, 타이키치도 부스의 겨울 간식을 즐길 수 있다. 시계탑에서는 매일 눈이 내리는 타임 스노우 이벤트

가 진행되며, 조각가 변대용의 북극곰 작품도 전시된다.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은 노스 중앙광장에 10m 높이의 대형 트리를 설치하고, 11월 30일 오후 6시 30분 눈 내리는 점등식 행사를 연다. 금요일부터 일요일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열고 오르골, 오너먼트 등 소품을 판매한다. 여주와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도 대형 트리와 조명으로 연말 분위기를 연출했다.

신세계사이먼 관계자는 “이번 겨울에는 야외형 쇼핑센터의 강점을 살려 오직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준비했다”며 “낭만적인 크리스마스 분위기 속에서 풍성한 쇼핑 혜택과 함께 아울렛에서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CU가 대규모 와인양주 연말축제를 열고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CU

CU

와인·양주 총 179종 63% 할인 프로모션

편의점 CU가 12월 한 달간 와인과 양주 179종을 최대 63% 할인하는 대규모 프로모션을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CU가 지난해 월별 매출을 분석한 결과, 와인과 양주 매출은 12월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CU는 송년회와 홈파티 수요가 몰리는 연말을 맞아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

먼저 샴페인 22종, 고가 와인 14종, 패키지 상품 6종 등에 대해 자체 할인과 네이버페이·토스페이 결제 시 20% 추가 할인을 더해 최대 63% 저렴하게 판매한다. 대표적으로 ‘피에르 가스트로’ 샴페인은 정가 대비 대폭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자체 와인 브랜드 ‘음mmm!’ 시리즈 인기 상품 10종도 최대 31% 할인하며, 2병 이상 구매 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다가오는 ‘붉은말의해’ 병오년을 맞아 ‘1865 적토마 에디션’, ‘로셰마 제 말띠 에디션’ 등 패키지 상품도 선보인다.

/손종욱 기자

일주일간 정부지원 ‘소프라이즈 한우세일’

농식품부, 7일까지 전국서 진행

연말 한우 할인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정부가 지원하는 행사로 12월 1일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의 마지막 ‘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12월 1~7일 일주일간 전국 주요 대형마트를 비롯해 슈퍼마켓, 농축협 하나로마트 573개소, 주요 온라인몰 등지에서 진행된다.

대상 품목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등심과 양지·설도 등의 불고기·국거리류이다.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

게 구성돼 있다. 단, 업체별 할인행사 일정과 할인대상 품목은 재고 사정에 따라 다르다.

세부내용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누리집과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매장별 축산물 소매가격 비교서비스 앱이다.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당 8540원, 양지는 4120원, 이 밖에 불고기 및 국거리류는 3000원 이하로 책정됐다. 이는 예년의 12월 상순 소비자가격과 비교해 10~30% 저렴한 수준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